

研究論文

# 근대 초기 한국어 교재의 역동적 정착 과정

— 로스(Ross, J.), 호세코(宝迫繁勝), 게일(Gale, J. S.)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

강 남 옥\*

I. 들어가는 말	IV. 맺는 말
II. 동서양 외국어 교재의 전통	<참고문헌>
III. 근대 초기 한국어 교재의 역동적 정착	<국문요약>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개화기 이후부터 일제 강점기 직전까지 외국인들이 저술한 한국어 교재를 ‘교섭과 정착’의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교재를 둘러싼 인물과 현전하는 각종 사료(史料), 또 교재에서 적용된 여러 가지 시각적 장치와 외국어 교재 제작 이론을 그 분석 방법론으로 놓고, 동서양 언어교재의 특성이 역동적으로 부딪히고 교섭하며 수용·정착되어 나가는 양상을 잘 보여주는 로스(J. Ross, 1877/1882), 호세코(宝迫繁勝, 1880), 게일(J. S. Gale, 1894)의 한국어 교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 뽑은 교재에 담긴 서지학적인 정보 및 시각 디자인과 관련된 범주들, 또 그것을 통해 구현된 한국어 교재의 형태 정보를 제시하면서 서양인과 동양인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리 잡아 나갔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한국어교육 전공(kangnw@snu.ac.kr).

기존의 외국인에 의해 저술된 근대 초기의 한국어 교재 연구는 주로 그 국어학적 측면, 특히 형태론 및 음운론, 혹은 국어사에 관련된 연구 영역에서 대체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예컨대 해당 교재에 나타난 어휘나 음운의 변화, 중세 국어와의 연관성, 표기법을 고찰해 보거나 외국인의 한국어 연구라는 대 주제 하에 외국 문법 체계의 수용 양상 등에 대한 논의를 담은 선행 연구는 비교적 많았고, 아직 발굴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시적인 진척을 보여 왔다.

한편으로 최근 실제적 수요의 증가와 함께 학문적인 방향성을 정착시켜 가고 있는 한국어교육<sup>1)</sup>의 영역에서도 초기 한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연구가 초기 단계여서 교재의 연대기적인 목록과 해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격적인 ‘외국어교육 교재론’의 보편적 논의에 이르기까지는 더욱 풍성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어교육은 응용언어학의 한 분야이니만큼 세부적인 부분—예컨대 교수·학습법, 말하기·듣기·쓰기·읽기의 기능별 교육법, 제2언어나 외국어 습득에서 일어나는 개별 모국어와의 전이 문제 등—에 연구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겠지만, 미시적·개별적 연구의 좌표를 잡아주고 분리된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한국어교육에 이어 학문적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통시적(通時的)인 연구는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특히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재와 관련한 통시적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시기로서 근대 초기<sup>2)</sup>인 1870년대 후반부터 1910년 사이의 변화 추이는 꼼꼼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개항과 함께 서양 문물과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

- 1)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어’는, ‘우리나라 말’이라는 한정적인 의미보다는 다른 여러 언어 중의 하나로서 ‘객관성을 부여한’ 한국어라는 뜻이며[이익섭, 『國語學概說』(學研社, 1986), 11쪽 참고], 따라서 ‘한국어교육’은 한국인이 자신의 언어를 지칭하는 의미를 벗어나 인류가 사용하는 여러 언어 중 ‘한국어’를 교수하고 학습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한국어교육”이라는 용어 속에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FL)’과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Korean as a second language: KSL)’이라는 개념이 대별될 수 있으나 근대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재를 다루고자 하는 이 글의 특성 상 주로 KFL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한다.
- 2) “근대”라는 용어 속에는 격렬한 철학적, 사학적, 사회학적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최대한 “근대”라는 용어에서 올 수 있는 철학적 개연성은 가급적 배제하기로 한다. 철학적인 근대성의 판단은 본 연구의 본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고의 “근대 초기”는 다만 시기적으로 일정한 때, 즉 19세기 말 개항(1876)으로부터 20세기 초 국권침탈 직전(1910)까지를 지칭하는 용어로서만 사용하기로 한다.

고 국외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처음으로 인지하고 접근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받아들이고 학습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학문적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에도 외국어로서의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사적 기록을 통해 멀리로는 신라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에 걸쳐 일관되게 한반도의 이웃 국가에서는 우리의 언어를 필요에 따라 학습해 왔음을, 또 반대로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수요로 인해 인접국(隣接國)의 언어를 학습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근대 초기를 전후하여 이전의 외국어교육의 학습 방식이 큰 변화를 겪는다는 점이다. 당시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출발한다.

## II. 동서양 외국어 교재의 전통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상호접변과 교류 속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한국어의 성립 이후부터 역사상 인접국들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간의 문물 교류를 위해 한국어 또한 부단히 주변 타 언어 지역으로부터 학습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한반도의 언어를 ‘외국어로서’ 배우게 된 시작점은 과연 어디로 잡아야 할 것인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사’는 아직 충분한 역사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몇몇 소수의 연구에서는 그 시점을 대단히 오래 전의 사실(史實)로 잡아 제시하기도 했다. 최고(最古)의 기점으로는 『東國通鑑』과 『三國志 魏志 東夷傳』을 근거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 황하 지역 중국 민족 간의 언어가 서로 불통하여 통역으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점을 든 것이 있고,<sup>3)</sup> 또 중국과 한반도와의 고대 교류사중 『東國通鑑』과 『筆苑雜記』에 남은 기록을 근거로 사실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 언어소통을 위한 학습의 필요성이 존재했었을 것으로 보기도 했다.<sup>4)</sup> 일본의 경우에도 고대 일본 역사서인 『日本書紀』 및 『日本逸史』, 『續日本書

3) 고영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 『言語 教育』, 6권 1호(1974), 81쪽.

4) 李觀洙, 『朝鮮朝의 語文政策 研究』(弘益大學校 出版部, 1987), 7쪽.

紀』 등의 기록을 통해 신라어 학습의 기록은 681년까지 소급하여 올라가며, 국가적 계획에 의한 집단적인 신라어 학습은 760년에 실시되었음을 밝히기도 했다.<sup>5)</sup>

역사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반도 언어 학습’의 기록은 민족어가 정립이 되는 고대에까지 소급될 수 있겠지만, 주지하다시피 구체적으로 그 교육이 운영된 과정, 교육사조, 교수-학습방법, 교재의 개발과 편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한국어교육의 전모를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외국어 학습의 역사적 기록들을 참조하되 교재라는 교수의 매개체(媒介體)가 구체적인 문헌으로 남아 있는 사례만을 중심으로 하여 외국어 교재의 동양적 전통과 서양적 전통을 교재 제작의 이론에 비추어 고찰하고자 한다.<sup>6)</sup>

### 1. 외국어 교재의 동양적 전통

이상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한국어, 즉 과거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의 언어를 학습한 기록은 상당히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당연히 한반도 주변의 인접국이었다. 이른바 한문이라는 문어(文語)가 중세 이전부터 강력하게 그 영향력을 미쳐 왔고 또 공통의 문어로서 작용하였지만, 구어(口語)의 소통 또한 그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왔고 동아시아에는 이른바 고유의 외국어교육을 위한 전통적인 교육 기관과 학습 방법이 존재해 왔다. 중국을 위시한 한국, 일본 등 동양권에서 유지되어 온 외국어 교수-학습의 전통적 방식으로

5) 李觀洙, 앞의 책, 12~13쪽; 小倉進平, 『增訂·補注 朝鮮語學史』(刀江書院, 1964), 369쪽. 참고로 李觀洙는 앞의 책 13쪽에서 다음의 문장을 각 사서(史書)에서 인용하였기에(밑줄 연구자, 일부 내용 중략) 제시해 둔다.

- 乙未に 新羅沙浪金若弼 大奈麻金原升を 遣して 調進る 則す習言語三人 若弼に 從ひて至る(681年)
- 本國王令齋御調貢進 又無知聖朝風俗言語者 仍進學語二人(759年)
- 令美濃武藏二國少年 每國二十人習新羅語爲征新羅也(760年)
- 停對馬島史生一員 置新羅譯語一人…言語不通 來由難審 彼此相疑(813年) 등.

6) 한국어 교재에 대한 동양적 전통에 대해서는 인접국의 교재를 통해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으나, 서양적 전통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대응점이 없을 수 있음을 자인(自認)하지 않을 수 없다. 서양인에 의한 한국어 교재는 근대 초기에나 제작되었기에 교재의 전통이라는 것이 ‘한국어’라는 언어에는 담길 만한 기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대해 서구에서의 ‘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의 전통이라는 보편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그 미비함을 보결(補缺)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항목이 추출되어 제시된 바 있다.<sup>7)</sup>

- (가) 반복적 암기와 검사를 통한 대면적 교육
- (나) 부문별 어휘 분류를 통한 어휘 확장 학습
- (다)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둔 가상 상황형 교재 활용
- (라) 고전(古典) 또는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외국어교육
- (마) 지역 전문가 출신의 세습적(世襲的) 방식의 외국어교육

(가)에서 드러내고자 한 것이 ‘교수-학습 방식’에 관한 것이라면, (나), (다), (라)에서 각각 유형화하고 있는 것은 교재의 유형과 교재를 활용하는 ‘교과 과정(curriculum) 및 교수요목(syllabus)’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마)의 항목이 포괄하는 내용은 외국어교육의 학습자 대상, 목표 등 ‘학습 환경’에 관한 사회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다.

먼저 (가)의 내용을 살펴보자. 대체로 동양권의 외국어교육 전통에서 교수-학습의 방식으로서 가장 널리 적용된 방식은 반복적인 암기와 검사,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일대일로 직접 교육 현장에서 대면하며 이루어지는 형식이었다. 조선의 사역원과 같은 외국어교육 기관의 경우 학습 기간은 대체로 짧고 기숙사 입소 등을 통해 집중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배송(背誦), 배강(背講), 사자(寫字) 등 당대 일반적인 교육기관의 교육 방법과 같은 반복적인 암기 시험을 치렀다.<sup>8)</sup>

이러한 반복적 암기 형태의 외국어 학습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북돋아주지 못하고, 학습 단계를 고려하지 않아서 빈도와 난이도에 관계없이 많은 표현을 그대로 외어야 하며, 문법의 습득과 활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반복적인 오류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장을 통제로 습득하고 학습자의 언어 환경을 완전한 목표어(目標語) 환경으로 조성하여 유창성을 확장시킨다는 취지에 있어서는 소위 몰입식 교수법(immersion teaching method)이라든지 19세기 중후반의 직접식 교수법(direct method)과 유사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교재와 관련된 (나), (다), (라)의 항목을 검토하기에 앞서, 외국어교육의 ‘사회계급적

7) 강남옥, 『教材 評價論을 통한 근대 초기 한국어 교재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5), 141~145쪽.

8) 鄭光, 『朝鮮朝 譯科 試券 研究』(成均館大大東文化研究院, 1990), 23, 57~58쪽.

환경'이라고 칭할 수 있는 조건인 ㉸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양권에서 유지되어 온 외국어교육에서 학습자들은 주로 해당 목표 외국어 환경에 근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즉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당 외국어와 친숙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왔다. 예컨대 지리적으로 국경지대에 살거나 국경을 오가며 경제활동을 하는 배경을 지닌 학습자라든지, 사회적으로 가족집단의 영향, 예컨대 대대로 역관(譯官)에 종사하는 환경으로 인해 쉽게 외국어 환경에 접할 수 있었던 이들이 대를 이어 세습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하고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외국어교육의 환경은 오늘날의 외국어 학습 환경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무역을 포함한 외교·통상의 목적으로 외국어를 배운다는 근본적인 면모는 오늘날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와 비교해도 큰 차이점이 없다. 더구나 재외 동포나 다문화 환경의 이중 언어 구사자 등 오늘날의 '접경인(接境人)'에 대한 인적 자원 활용에 따른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동양권의 교수-학습의 방식과 전통을 바탕으로 다수의 외국어 교재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만들어진 교재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 있고, 이를 위 (㉸), (㉹), (㉺)로 제시하였다. 이를 차례대로 논구(論究)해 보자.

### 1) 분류·범주별 외국어 어휘 교재

동양권 외국어 교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무엇보다 어휘 학습이 범주별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많은 수의 외국어 교재들이 목표 외국어의 어휘를 '천문', '신체', '동물' 등의 상위 개념으로 분류하여 그 범주의 연관 관계 속에서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서적에 따라서는 해당 어휘가 쓰인 단문(短文)을 제시하여 활용 방법에 대한 예시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한국어교육의 경우 이러한 전통은 중국 송나라의 손목(孫穆)이 지은 역어집(譯語集)인 『鷄林類事(12세기 초, 1103년 추정)』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서책은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어 학습서라기보다는 당대 고려시대의 어휘 353단어를 천문·인물·신체 등 18항목으로 추려 내어 한자로 적어 놓은 '외국어 어휘 수집 보고서'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단지 언어실태 조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서(譯書)로서의 전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후 나타난 『朝鮮館譯語(15세기 초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어휘를 분류,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별 어휘 학습은 이후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 전통을 유지한다. 그리고 비단 중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여진어·몽골어 등 기타 외국어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어휘집을 간행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습했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어 어휘집인 『譯語類解』(1682)를 비롯하여 중국어·한국어·몽골어의 분류 어휘집인 『蒙語類解』(조선 중기 추정), 여진어 분류 어휘집인 『同文類解』(1748), 일본어 분류 어휘집인 『倭語類解』(1701~1709년 추정) 등이 조선 시대 각 외국어 학습서로서 발간되었다.<sup>9)</sup>

이들 ‘유해(類解)’류의 교재들은 2개국 어휘를 상호 제시하고 음가(音價)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8세기를 전후해서 이를 개선하려는 확장된 형태의 어휘 분류 학습서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인의 한국어 학습서인 『交隣須知』(1703~1704년 추정)이다. 이 책에서는 각 부문별 어휘에 그 어휘를 사용하는 짧은 문장을 제시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가상적 상황을 구성하여 서사적으로 제시한 교재

동양권의 외국어 교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은, 외국어 발화 상황을 현실에 바탕을 두어 실제 상황처럼 꾸미고 그 상황에서 발생할 만한 담화를 가감(加減)이나 교육적 변형 없이 교재로 그대로 실어 놓으면서, 시간적인 흐름에 맞추어 서사성(敘事性)을 띠고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가상 상황을 제시하는 교재 구성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려 말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老乞大』와 『朴通事』를 들 수 있다. 전자는 교역을 떠난 상인(商人)의 전반적인 여정을 교재 구성의 기본 틀로 삼고 그 여행과 매매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편찬된 실용 회화 중심의 교재이고, 후자는 사신으로 중국에 간 사람들이 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편찬

9) 姜信沆, 『韓國의 譯學』(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91~120쪽; 金鍾澈, 「조선시대 외국어교육과 서사문학」,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上)』(도서출판 月印, 2000), 3~4쪽; 姜南旭, 위의 논문, 142쪽.

한 이른바 ‘실용 회화 교재’이다.<sup>10)</sup> 이외에도 조선 중기의 일본어 학습서인 『捷解新語』(1676)도 이러한 형식을 유지하여, 일본인과의 상거래 등에 사용되는 회화, 통신사 일행이 일본 각지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회화로 담아서 제시하기도 한다. 덧붙여 이 『捷解新語』는 역관들이 작성하게 되는 공문서와 서간문에 대한 서식 등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학습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수 있다.<sup>11)</sup> 이와 같은 교재 구성 방식은 외국어교육의 실제성(authenticity)을 외국어 습득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3) 고전(古典) 또는 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재

동서양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외국어교육은 문어에 대한 교육이었고 그 지도 방법은 이른바 고전을 문법 번역식의 방법으로 체득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양쪽 공히 고전을 활용하여 실제 소통 가능한 외국어를 학습한다기보다는 증세적 소통 기반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이들 자료를 활용해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서양의 경우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 문학을 원전으로 삼아 문법 번역식의 교수를 실시하였고,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는 한문으로 이루어진 고전 문학 작품을 정전(正典)으로 삼아 반복 학습하고 완전히 체득될 때까지 암송하는 학습 방법을 취하였다. 따라서 한문이 아닌 민족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외국어 공부를 하는 방식은 크게 각광받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실용적인 측면에서 외국어 고전이나 문학 작품을 활용한 사례도 있다. 물론 이러한 예는 크게 많지 않은데, 개인적인 학습이나 부차적인 학습 자료로서 한

10) 鄭光, 『譯註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신구문화사, 2006), 27~38쪽. 이 책을 ‘실용 회화 교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보다 이 책이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빠른 시간 안에 동시대의(contemporary) 외국어를 반영할 수 없기에 외국어 교재는 더러 시차(時差)가 생기곤 했다. 『老乞大』가 실용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이 책들의 언해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11)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어 두어야 할 것은, 행정 업무를 위한 단순한 외국어 번역문, 전사문(傳寫文) 내지는 대화기록문을 ‘외국어 교재’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19세기 중엽에 일본에서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講話』, 『漂民對話』의 경우, 외국어 대화문이 시간 순으로 실려 있다고 해도 사신 접대나 표류 선원의 조서 작성 및 반환 등과 관련된 외교적 기록 서일 뿐, 내용 면에서나 발행의 목적에서나 학습자를 가정한 ‘교육적 관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이것을 ‘한국어 학습서’로 보고 있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국어교육을 위한 문학 작품으로 소설을 활용했고, 초창기에는 『淑香傳』을, 19세기 이후에는 『崔沖傳』, 『壬辰錄』, 『春香傳』, 『九雲夢』과 같은 작품을 한국의 풍습을 이해하고 번역 학습을 하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sup>12)</sup> 중국에서도 청나라 통역관이 국문 소설을 소장하고 읽었다는 기록이 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sup>13)</sup> 대체로 18세기 무렵부터는 한국어 교재로서 한국어로 적힌 문학 작품을 더러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실용적 효율은 그다지 높지 못한 것 같다.

이상과 같은 동양의 외국어 교재들은 19세기 말엽을 전후로 하여 큰 변동을 겪는다. 물론 중세 사회가 변동을 겪었다는 점에서 민족과 민족어에 대한 자각이 나타난 것은 그 이전부터였지만, 외국어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시기 이후 크게 변화된 것은 ‘외국어 학습’을 바로 보는 관점과 접근법의 변화였고, 그것을 반영하는 교재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해외 열강들의 한국어 학습 및 연구가 시작되었고, 한반도에서도 외국어를 실용적인 측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며, 기왕의 전통적 방식과 전통적 교재를 유지해 오던 일본도 한국어 학습에 대해 대대적인 변화를 꾀한다.<sup>14)</sup>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교재가 호세코(宝迫繁勝)의 교재인 것이다.

## 2. 외국어 교재의 서양적 전통

그렇다면 19세기에서 20세기 직전 즈음의 서구 사회에서 외국어를 학습하는 전통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사에 대한 연

12) 편무진, 「개화기 한국에서의 일본어교육과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編),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교류』(국학자료원, 2004), 122쪽.

13) 金鍾澈, 위의 논문, 4쪽. 여기에서는 朴趾源의 『熱河日記』에 실린 일화를 들고 있다. 여정 중에 만난 청나라측 통관(通官; 통역사)이 국문 소설인 『劉氏三代錄』을 읽었다고 하며 한국어로 몇 마디를 건넸으나, ‘읽어도 전혀 말이 닿지 않고 뒤범벅이며 들어도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다.’고 기록된 사례를 들며, 외국어교육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실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4) 당대 일본인의 한국어교육의 변화 과정을 모두 다루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편무진, 위의 논문, 120~124쪽; 이명희, 「明治時代の 朝鮮語學習: <交隣須知>의 時代別 背景을 中心으로」, 『日語日文學研究』, 44輯(韓國日語日文學會, 2003), 207~224쪽 등에 그 과정이 비교적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최근 신문 지면에도 실린 ‘일본의 조선어회화’ 관련 기사[《중앙SUNDAY》, 106호(2009. 3. 22), 1, 4쪽]에서도 자료 발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구 결과물들을 검토해 본 결과, 영어를 비롯하여 독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 등의 유럽의 각 언어들이 어떻게 학습되고 어떤 교재가 이정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소략하나마 수행되어 왔다.

그런 한편으로, 서구의 외국어 교재는 오히려 동양의 교재들에 비해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발달 과정, 교재의 발간 등이 훨씬 빈약함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유럽의 각국이 식민지 건설과 팽창주의의 시기에 접어든 19세기 이전까지 국가 단위의 외국어 학습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다는 점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나 한국 등 아시아의 왕조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역관의 양성과 인접국의 외국어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권장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 주도로 했다는 점과 크게 다르다.<sup>15)</sup> 외국어 교재의 발행도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이 대부분이었고, 민족어에 대한 자각 자체가 오히려 극히 느린 속도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는 또한 인쇄술의 발달과 같은 차원도 개입되어 있고, 유럽 각 민족어에 대한 철자법도 제각각인 탓에 확립되어 있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 없다는 것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웃 언어들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성이 낮았던 사회적인 원인 또한 자리 잡고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서양의 외국어교육, 또 외국어 교재에 대한 관심은 거의 19세기가 넘어서야 갑자기 큰 파동으로 드러나게 된다. 물론 그 이전에 이러한 변화를 표출하게 한 원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고 있었다. 서양의 외국어교육은 중세 이전까지는 이른바 고전어(古典語)인 라틴어 교육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라틴어 교육은 음성 언어 중심의 실용적인 의미의 외국어 학습이 아니라 문자 언어 중심의 학술적인 의미의 언어 학습이었다. 이에 더하여, 라틴어의 학습은 단순한 언어 학습

15) 일본의 경우 막부(幕府) 정치 체제 하에서 대체로 ‘번(藩)’이라는 지방자치 조직이 각 지방을 관할했는데, 한국과 관련된 외교통상의 문제는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대마도(對馬島)에 주로 귀속되는 사안이기도 했다. 예컨대 1727년 일본의 유학자 아메노모리(雨森芳洲)의 건의로 12~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학습하여 통역관인 ‘通詞’로 양성시키도록 설치한 ‘최초의 공적인 한국어 학습기관’인 ‘한어사(韓語司)’도 대마도에 세워진 것이었다(林甲洙,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집문당, 1999), 364~365쪽 참고). 외국어 교육에 대한 일본의 중앙 정부의 전략적 통제는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소 차별점이 있다.

의 차원을 넘어, 중세 이전까지는 인간의 품성을 도야하고 지적 능력을 계발하며 훌륭한 수사법을 연마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여겨지기도 했다. 라틴어를 교육하는 방법은 흔히 고전적 교수법(classical method)<sup>16)</sup>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문법 규칙에 초점을 맞추고, 어휘와 여러 격변화와 어형변화를 암기하고, 글을 번역하고, 쓰기 연습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에는 외국어에 있어서 ‘말하기 교육’은 거의 인지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였다.<sup>17)</sup>

이러한 문자 언어 중심의 고전적인 외국어 교육은 16세기를 지나 17세기 무렵에 이르면서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된다. 영국에서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를 제2언어로서 학습하려는 유행이 크게 일었고, 반대로 프랑스에서는 신교도들이 영국 땅으로 건너와 정착하면서 영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도 생겼기 때문이다.<sup>18)</sup> 이 당시부터 외국어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학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적 고민들이 다양하게 분출되기 시작하였고, 음성 언어 중심의 ‘말하기’가 외국어 습득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성취 목표가 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나타났던 교재사적으로 의미 있는 외국어 교재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706년에 존 킹(John King; Johann König)이 저술한 『영어지침』(Englischer Wegweiser)은 17세기와 18세기 독일어권 학습자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인 책이었는데,<sup>19)</sup> 과거 유럽에서의 외국어 학습 방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상황을 담은 교재로서 외국어 교육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를 보면 먼저 문법의 여러 분야들을 대응시키거나 체계적으로 정리시켜 학습하고 사회적인 필요성을 근거로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대화를 양 언어를 좌우에 배치하여 대역(對譯)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하고 있다(<그림 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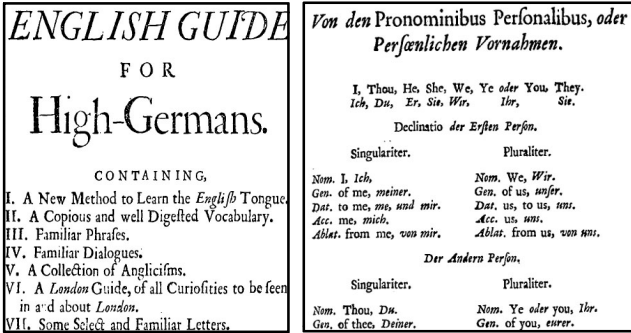
16) 이 고전적 교수법을 달리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 일컫기도 하는데, 외국어에서 모국어로 번역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문장 해석과 문법 규칙 암기가 주된 내용이다.

17) Brown, H. Douglas(著)이홍수(外 譯),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서울: 피어슨 에듀케이션 코리아, 2001), 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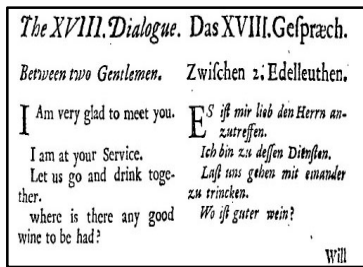
18) 신길호, 『영어교육연구』(북스힐, 2004), 20쪽.

19) 18세기에 발행된 영어권 도서 약 15만여 권을 디지털화한 데이터베이스인 ECCO DB(Eighteenth Century Collections Online)에는 당대 외국어 교재들도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http://infotrac.galegroup.com/itweb/snu?db=ECCO>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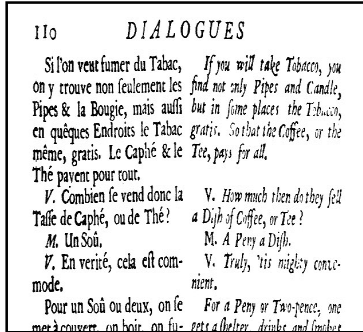
<그림 1> 존 킹, 『Englischer Wegweiser』의 목차 및 37페이지 일부



<그림 2> 존 킹, 같은 책의 173페이지 일부



<그림 3> 기 미에지가 제작한 외국어



건설에 따라 제2언어로서 확산되기 시작한다.

이보다 조금 앞선 1685년에는 기 미에주 (Guy Miege)가 영어 교재인 『영어 교습을 위한 새 교수법』(Nouvelle Méthode pour apprendre l'Anglois)을 제작한다. 이 교재도 외국어 교육사에서 주요한 교재로서

다루고 있는데, 이 교재의 경우에는 외국어의 철자와 발음, 그리고 구(句; phrase) 중심의 대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 방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대화 윗부분에 문화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에서도 언급하고 있어 주목해 볼 만하다(<그림 3>참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유럽 각국의 언어가 서로 외국어로서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각국 사이의 해외 무역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라틴어라는 학술적 공용어보다 사회적 필요성이 부각되는 각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형성되게 된다. 영어는 18세기를 전후로 하여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러시아, 인도, 북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통상과 외교·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어가 학습되기 시작하며, 마찬가지로 프랑스 어나 독일어, 스페인 어, 포르투갈 어 등도 해외 식민지의

20) 이 그림은 Howatt, A. P. R., *A History of English Language Teaching*(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4), p. 62. 'Figure4.2.'로부터 일부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한편 기존의 고전식 학습법의 외국어 학습을 비판하고 목표어의 완전한 노출을 통해 언어의 자연스러운 습득을 주장하는 조류도 나타났는데, 이를 자연적 방법(natural method)이라고 하고, 이후 베를리츠(Maximilian D. Berlitz)에 이르러서 원어민 교사의 직접적인 외국어 교육을 보편화한 다음부터 직접식 교육법(direct method)이라는 교수법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 교수법은 주로 어린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모델로 하여 교실에서 모국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해당 외국어만 사용하며, 문법은 가르치지 않고 일상대화를 위주로 가르치는 식이었다. 그러나 직접 교수법은 학습 내용의 체계적 구성이 부족하고, 모국어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될 사항들까지도 외국어로 설명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등의 결함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및 학교에서의 교육방법으로서 완전하게 정착하지는 못하였다.<sup>21)</sup> 교재를 활용한 교수 행위보다는 교사와 학습자가 면대면(面對面)으로 접촉하는 그 자체를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이 학습법은 대단히 귀족적인 방법이기도 했고, 또 교육에 대한 일종의 이상주의적 주장을 보인 것이기도 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서양의 외국어 교재들은 중세 언어관 속에서 강력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고수하는 전통 속에 있다가 17세기에서부터 역사적 변화로 인한 다양한 이동, 실용적 회화의 중요성의 부각 등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18세기를 지나면서 이른바 유럽 각국의 팽창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자국어권 전파하고, 무역을 하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그들에게 ‘새로운 땅’의 언어를 익히려는 노력도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특히 좀처럼 문을 열지 않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유럽 각국은 언어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종교와 문화, 나아가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 중 흥미로운 기록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로스(J. Ross)의 교재이다.

### III. 근대 초기 한국어 교재의 역동적 정착

지금까지 19세기 이전까지 이어져 온 동양과 서양의 외국어교육과 외국어 교재

21) Howatt, *ibid.*, pp. 217~227.

의 전통을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짧은 연구로 신기에는 방대한 내용인 만큼 충분한 논의로 이끌기에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동양적 외국어 교재의 전통과 서양적 외국어 교재의 전통은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면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① 기본적으로 공통 문어인 한문과 라틴어의 전통 속에서 ‘고전적 방식’의 외국어 교육과 의사소통을 전제(前提)하지 않는 문어 외국어 교육이 존재했다는 점, ② 국경 및 변방이나 교역 관련 실수요자가 생기면서 외국어교육과 교재에 대한 수요가 발생해 왔다는 점, ③ 회화의 경우 가상적 상황을 상정하고 주로 양언어를 상하 또는 좌우로 배치하여 대역하는 형태의 교재가 주종이었다는 점은 유사하나, 반면에 ① 동양의 경우 정부 주도의 외국어교육 시행과 통역자 양성, 교재 편찬의 전통이 이어져 왔다는 점, ② 서양의 경우 상품의 교역이나 종교적 갈등에 의한 이동에 의해 외국어 수요가 발생하고 민간 전문가에 의해 외국어 교재 제작이 시작되었다는 점, ③ 교재의 경우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문법적인 접근은 없고 분류 어휘집 형태나 서사성을 갖춘 일관된 상황을 제시하는 목적 맞춤형 교재가 많으나 서양의 경우 발음과 문법을 분석적으로 비교·정리한 후 단편적인 예피소드를 대화로 제시하는 형태의 교재 전통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한반도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서북방과 동남방, 그리고 중심부의 사례를 한 가지씩 들면서 한국어 교재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정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양인의 외국어교육 관점에서 동양적인 외국어 교재 구성 방식을 폭넓게 수용한 로스(J. Ross)의 *Corean Primer*(1877)와 *Korean Speech*(1882), 『交隣須知』로 대표되는 기존의 동양적 외국어 교재관을 깨고 다양한 도식(圖式)을 활용하여 문법적 체계화를 시도한 호세코(宝迫繁勝)가 1880년에 편찬한 『韓語入門』과 『日韓 善隣通語』, 이보다 4년 후 한국인에 대한 수용적 태도, 그리고 기존의 동양적 외국어 교재의 틀을 존중하고자 하는 의도로 오히려 서양인의 외국어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적인 외국어 교재 체제와 제작관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게일(J. S. Gale; 奇一)의 『辭課指南(스과지남)』(*Korean Grammatical Forms*, 1894)을 소개하면서 동서양의 외국어 교재관의 상호 교섭과 정착의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존 로스: 교재 구성 방식의 교섭 양상

19세기 이전에는 서양인들이 한반도로 왕래를 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고 그런 까닭으로 인해 한국의 언어에 대해 학습을 해야 할 동기가 전혀 부여되지 못했다. 따라서 서양인들은 일본인을 따라 단독 입국하거나 난파 또는 표류로 소수 입국한 사례 이외에는 교류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서양인들이 적극적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19세기 초반 이후이다. 1835년부터 천주교 조선대교구를 담당한 파리 외방전교회(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의 신부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방대한 기록을 시작하지만 대부분 박해로 인해 처형되었고 자료들은 소실되어 찾을 수 없다.<sup>23)</sup> 천주교 박해와 함께 조선 후기는 철저한 쇄국의 기초를 유지하였고 외부 세계에 대해 배타적인 정책을 취했다. 이는 외압에 의해 타의적으로 1876년 강화도조약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변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양인들의 한반도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언어 학습은 개항 이전까지 한반도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국경을 가까이 한 변경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로스(J. Ross; 중국식 이름은 羅約翰)의 교재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22) 강남옥, 앞의 논문, 48쪽에서 인용. 한반도에 최초로 들어온 서양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어느 정도 있지만, 1592년 12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종군 신부로서 들어와 경남 진해(鎭海) 지역의 전쟁 난민들에 대한 구호 활동을 했던 스페인 사람 세스페데스(G. de Cespedes), 1604년 통영 앞바다에 표류한 포르투갈인 선원 ‘之緩面第愁’(주앙 멘데스로 추정), 1628년에 경주 근처 해안에 표류했다가 나중에 조선 사람으로 귀화·정착한 네덜란드인 벨테브레(J. J. Weltevree; 朴淵), 1653년 제주도 남쪽에 좌초하여 입국한 네덜란드인 하멜(H. Hamel) 등을 꼽는다. 조선 조정은 하멜을 신문하기 위해 조선어-네덜란드어 통역자로 벨테브레를 세웠는데, 하멜은 그의 표류기에서 ‘벨테브레가 눈물을 흘리며 반겼으나 그의 어설픈 네덜란드 말이 오히려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23) 달레(Dallet, C.) (著)/안응렬·최석우(譯), 『韓國天主教會史(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137~138쪽. 달레의 기록에 따르면 다블뤼(Daveluy, M. N. A.) 등이 漢韓佛사전, 10만 어휘 이상의 한국어-라틴어 사전, 문법서 등을 개발했으나 1866년 병인박해로 전량 압수되었고 분서(焚書)되었다고 한다. 1880년 발간된 『한불주언(韓佛字典)』은 소실된 자료를 딛고 리델(Ridel, F. C.; 李福明), 코스트(Coste, E. J. G.; 高直善) 외 파리외방전교회의 신부들이 작업을 다시 진행하여 완성된 것이다.

그는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소속으로 32세 때인 1873년 여름 상하이(上海)에 중국 파송 선교사로 도착, 이듬해부터 만주의 각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중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빠르게 적응하여 도착한 지 3년 만인 1876년에 중국어 회화 교재인 *Mandarin Primer*(『中國官話入門』)를 냈고, 같은 해 봄에 의주 출신 중인 계급의 행상인(行商人) 이응찬(李應贊)을 “한국어 선생”으로 삼아 공부를 시작하고 1년 만인 1877년에 *Corean Primer*를, 그리고 5년 뒤인 1882년에 이 책의 개정판에 해당하는 *Korean Speech*를 출판하였다.

로스의 행적이나 저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선행 연구가 있고,<sup>24)</sup> 또 평북 방언론과 관련된 연구, 기타 국어학적인 연구에 대해서도 아직 미진한 점이 있으나 어느 정도 다루어지기도 했다.<sup>25)</sup> 그러나 로스의 교재가 기존의 서양인의 외국어 교재와 어떻게 다른지, 또 초판과 재판 사이에서 어떤 부분들을 유의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어교육의 교재사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해 연구된 부분은 아직 그 예를 찾기가 쉽지 않다. 로스의 교재가 지니고 있는 교재 구성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띄어쓰기, 가로쓰기의 적용

로스의 교재에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시각적 구안 방법 중 가장 두드러지며 또한 의의가 있는 것이 띄어쓰기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초판본인 *Corean Primer*와 개정판인 *Korean Speech*에서 모두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초판에 비해 개정판에서는 현재 한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 띄기(단어 사이의 빈칸 띄어쓰기, word division; spacing)를 비교적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로스의 띄어쓰기는 한국인에 의해 띄어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독립신문』의 창간호(1896. 4. 7)보다 훨씬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24) 이응호, 「Ross 목사의 *Corean Primer*에 대하여」, 『명지어문학』, 11집(명지대학교 국문학과, 1979); 김정현, 『羅約翰(John Ross): 한국의 첫 선교사』(계명대학교 출판부, 1982); 金周賢, 「<*Korean Speech*>에 관한 연구」, 『승려어문학』, 2집(명지대 승려어문학회, 1985) 등.

25) 최명옥, 「존 로스의 *Corean Primer*[한국어 초보]와 평북 의주지역어」, 『국어학논총』(서울: 螢雪出版社, 1985); 한성우, 「의주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3); 신중진, 「개화기 한국어 회화서 <KOREAN SPEECH>에 대하여」, 『인문논총』, 27(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등.



로스의 띄어쓰기는 한국어 회화문과 영역문을 대비할 때 영역문의 띄어쓰기에 맞춰 국문을 배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고 문법성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쪽으로 그 의미를 평가절하 받기도 했으나,<sup>26)</sup>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교재를 활용할 학습자들이 띄어쓰기에 익숙한 서양인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대단히 교육적인 취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 의도이겠지만, 로스의 교재는 기본적으로 가로쓰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서양 제책(製冊)의 전통이자 외국어 교재의 기본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로스는 개정판인 *Korean Speech*에서 마지막 부분에 ‘읽기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한적으로 동양권 전통인 세로쓰기를 제시하고 하단에 번역을 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용(變容) 역시 학습자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외국어 교재의 저자가 목표어의 언어 전통을 적절한 선에서 수용하며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상하 구조의 3단(4단) 대역 방식의 채택

위의 <그림 1·2·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이전의 서양권의 외국어 교재들은 좌우를 기준으로 하여 모국어와 목표어를 배치하고 대역을 시도하는 이른바 ‘거울(mirror) 형’의 구조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로스의 교재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지 않고 동양적 외국어 교재의 대화문 제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로스의 교재는 ‘목표어 원문(1단)—이탤릭체의 로마자 음가 표기(2단)—어순별 단어 직역(3단)’의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sup>27)</sup> 이러한 3단 구성법<sup>28)</sup>은 그

<그림 4> *Corean Primer*와 『老乞大』의 대화문 제시 방식 비교



26) 이기문, 「독립신문과 한글문화」, 『주시경학보』, 4(탑출판사, 1989), 14~15쪽.  
 27) 참고로 개정판인 *Korean Speech*에는 한국어 대화문 위에 다시 직역형의 번역이 아닌 자연스러운 영어 번역을 달아서 4단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구성에는 차이가 없다.

림의 우측에 제시한 『老乞大』, 『朴通事』를 비롯하여 『捷解新語』 등과 같은 전통적인 동양 외국어 교재의 제시 방식이기도 했다. 이렇듯 로스는 한반도의 서북방 접경에서 한국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목표 외국어의 특성이라든지, 기존의 전통을 준거 삼아 그것을 대상 학습자의 전통과 질서 속에 적절히 융화하여 교재를 제작했던 것이다.

## 2. 호세코: 언어 분석 방식의 교섭 양상

반면에 한반도의 동남부에서는 그 반대의 양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의 변화가 일어난다. 일본은 에도(江戸) 시대에서부터 비교적 구체적인 한국어교육의 전통<sup>29)</sup>을 형성해 나가다가 메이지(明治) 시대에 들어서 더욱 체계적·중앙집권적으로 변화한다. 특히 유신(維新)의 결과로 이루어진 폐번치현(廢藩置縣)은 한국어교육의 공식적 방향 결정권을 대마번주(對馬藩主)에서 일본국 정부로 옮겨 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1873년에는 대마도가 아닌 부산의 초량왜관에 조선어학소가 개설이 되었고 1876년 조선과 일본의 강화도조약이 맺어진 다음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 1880년 동경외국어대학교에 조선어과가 정식으로 설치되면서 한국어는 완전히 통제적·전략적 외국어로 자리를 전환하게 된다.

19세기 후반 일본인들의 한국어교육이 본격적인 변화를 겪던 시기에도 교재의 변화는 크게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쓰던 교재는 여러 가지로 당대의 실정이나 실제 한국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엄밀하고 체계적인 학습자 요구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겠지만 당시에 제기되었던 한국어학습 교재의 새로운 수요 형성이 1880년 전후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교재 변화의 흐름을 주도한 인물로서 부산 초량 왜관 조선어강습소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외무 공무원 우라세 히로시(浦瀬裕),<sup>30)</sup> 호세코 시게카츠(宝迫繁勝)를 꼽을 수 있고, 이들은

28) 편의상 ‘3단 구성’이라고 하였지만 동양권 옛 문헌들의 주(註)나 협주(夾註)와 비슷한 형태라고 보면 될 것이다.

29) 각주 16) 참고

30) 우라세는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신현(申櫛)과 구로다(黒田清隆) 사이에서 통역을 한 통역관이며, 또 지식영이 종두법에 접할 수 있도록 부산 초량에서 제생의원장 마즈마에(松前謙)와 해군 군의관 도즈카(戸塚積齋)를 소개해 주었다는 일화 등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훗날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등과 같은 일본인 출신 한국학 연구자들의 계보로 이어진다.

이 중에서 호세코가 발간한 교재인 『韓語入門』과 『日韓 善隣通語』는 기존 에도 시대의 전통적인 교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교재 제작의 형식을 구안한 독특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우라세의 교재는 기존에 있었던 『交隣須知』를 내용을 교정하고 활자본으로 개선하는 선에서 이전의 교재 형식을 답습하는 것에 그쳤던 것에 비해서 호세코의 경우는 과거 『交隣須知』 방식의 어휘 중심 교재 제작의 기본적 틀은 지키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자기 학습 활동, 서양의 문법론을 과감하게 적용한 한국어 문법 분류, 실용적이고 실제성이 높은 대화문 구성 등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교재 흐름을 이루어낸 전환기의 교재라는 점에서 분석과 평가의 가치가 있다 하겠다. 호세코의 행적이나 저서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기로 하고,<sup>31)</sup> 호세코의 교재가 지니고 있는 교재 구성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문법 규칙과 활용에 대한 체계적 제시

『韓語入門』과 『日韓 善隣通語』은 제작의 목적과 예상 독자층에 차이가 있었다. 전자의 교재가 한국어 문법과 어휘를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엮어 놓은 것에 해당했다면, 후자의 교재는 실용 회화를 위한 기초 한국어 독학서에 해당했다. 호세코는 각 책의 서문에서도 그 목적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번역 및 밑줄 연구자).

대개 교류의 으뜸으로 칠 것은 언어 이외에는 그다지 없으며 의사소통이 된 후에야 교분도 두터워진다. [中略] 그런데 종래 한국어 학습의 문법서가 없는 까닭으로 인해 선각자가 ‘일찍이 한국어를 배우는 자는 10년의 세월을 지내지 않으면 그것을 쓸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문법서가 없기 때문이다. 고로 문법서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 『韓語入門』 緒言 중에서

31) 이에 대해서 강남옥, 위의 논문, 86~92쪽; 이명희, 위의 논문, 221쪽; 이카라시 고이치(五十嵐 孔一), 『書評: 寶迫繁勝, 韓語入門(上·下)과 日韓善隣通語(上·下)』, 『형태론』, 1권 2호(박이정, 1999), 379쪽; 사이토 아케미(齊藤 明美), 『(개정판)交隣須知의 系譜와 言語』(서울: 제이앤씨, 2004), 101~103쪽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언어를 배우는 데에는 방법이 있으니, 대개 어학서적을 가지고서 변화를 연구 하고, 그 나라 사람에게 (그것을 써 보면서) 말이 엮이는 이치를 바로 잡은 후에야 (언어가) 익혀지는 것이다. [中略] 바야흐로 지금 세상이 되어서는, 이웃 나라와의 수교가 필수적이며, 이웃 나라의 수교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언어를 배우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내가 ‘선린통어’를 지은 까닭인 것이다.

— 『日韓 善隣通語』 緒言 중에서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자인 호세코는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 문법의 규칙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해가 아닌 구어 회화가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저 듣고 따라하는 방식으로는 언어 학습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규칙을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한 것이다. 그러한 의도에 부합하듯, 두 교재에서는 문법 규칙을 제시하고 이를 도표로 정리하는 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림 5> 『韓語入門』과 『日韓 善隣通語』에 실린 다양한 도표들의 예시<sup>32)</sup>

①	②	③	④																																																																																										
<table border="1"> <tr> <td>글 기</td> <td>비 레</td> <td>승 성</td> <td>새 성</td> <td>사 공</td> <td>統括普通及獨立名詞之圖</td> </tr> <tr> <td>草</td> <td></td> <td>鳥</td> <td></td> <td></td> <td></td> </tr> <tr> <td>문 소</td> <td>수 리</td> <td>서 외 국</td> <td>농 공 업</td> <td>공 업 대 외</td> <td>普通名詞</td> </tr> <tr> <td>馬</td> <td>牛</td> <td>商 賣</td> <td>商 賣</td> <td></td> <td>普通名詞</td> </tr> <tr> <td>강 상 도</td> <td>鴨 綠 江</td> <td>長 白 山</td> <td>興 寧 道</td> <td>大 同 江</td> <td>獨立名詞</td> </tr> </table>	글 기	비 레	승 성	새 성	사 공	統括普通及獨立名詞之圖	草		鳥				문 소	수 리	서 외 국	농 공 업	공 업 대 외	普通名詞	馬	牛	商 賣	商 賣		普通名詞	강 상 도	鴨 綠 江	長 白 山	興 寧 道	大 同 江	獨立名詞	<table border="1"> <tr> <td>라 놈 이</td> <td>主 格</td> <td>名 詞 之 格</td> <td>未 然 現 在 過 去 命 令 分 詞</td> </tr> <tr> <td>라 놈</td> <td>物 主 格</td> <td></td> <td></td> </tr> <tr> <td>라 놈 을 의</td> <td>目 的 格</td> <td></td> <td></td> </tr> </table>	라 놈 이	主 格	名 詞 之 格	未 然 現 在 過 去 命 令 分 詞	라 놈	物 主 格			라 놈 을 의	目 的 格			<table border="1"> <tr> <td>爲 爲</td> <td>爲 爲</td> <td>爲 爲</td> <td>爲 爲</td> <td>爲 爲</td> </tr> <tr> <td>이 자</td> <td>보 자</td> <td>가 자</td> <td>하 자</td> <td>하 자</td> </tr> <tr> <td>이 자</td> <td>하 자</td> <td>본 다</td> <td>간 다</td> <td>하 자</td> </tr> <tr> <td>하 자</td> <td>하 자</td> <td>하 자</td> <td>하 자</td> <td>하 자</td> </tr> <tr> <td>하 자</td> <td>하 자</td> <td>하 자</td> <td>하 자</td> <td>하 자</td> </tr> <tr> <td>하 자</td> <td>하 자</td> <td>하 자</td> <td>하 자</td> <td>하 자</td> </tr> </table>	爲 爲	爲 爲	爲 爲	爲 爲	爲 爲	이 자	보 자	가 자	하 자	하 자	이 자	하 자	본 다	간 다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table border="1"> <tr> <td>直 行</td> <td>正 格</td> <td>正 格</td> </tr> <tr> <td>하 자</td> <td>하 자</td> <td>하 자</td> </tr> <tr> <td>하 자</td> <td>하 자</td> <td>하 자</td> </tr> <tr> <td>하 자</td> <td>하 자</td> <td>하 자</td> </tr> <tr> <td>하 자</td> <td>하 자</td> <td>하 자</td> </tr> <tr> <td>하 자</td> <td>하 자</td> <td>하 자</td> </tr> </table>	直 行	正 格	正 格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글 기	비 레	승 성	새 성	사 공	統括普通及獨立名詞之圖																																																																																								
草		鳥																																																																																											
문 소	수 리	서 외 국	농 공 업	공 업 대 외	普通名詞																																																																																								
馬	牛	商 賣	商 賣		普通名詞																																																																																								
강 상 도	鴨 綠 江	長 白 山	興 寧 道	大 同 江	獨立名詞																																																																																								
라 놈 이	主 格	名 詞 之 格	未 然 現 在 過 去 命 令 分 詞																																																																																										
라 놈	物 主 格																																																																																												
라 놈 을 의	目 的 格																																																																																												
爲 爲	爲 爲	爲 爲	爲 爲	爲 爲																																																																																									
이 자	보 자	가 자	하 자	하 자																																																																																									
이 자	하 자	본 다	간 다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直 行	正 格	正 格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자																																																																																											

이상의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명사의 분류, 조사의 격, 동사의 시제와 활용, 심지어는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그 규칙성을 밝히고 문법을 통한 언어 확장 의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32) 좌측부터, ① ‘統括普通及獨立名詞之圖’: 『韓語入門(下)』 제3장 ‘統括名詞’편, 1쪽 2면~2쪽 1면; ② ‘名詞之格’: 같은 책 제4장 ‘人稱’편, 5쪽 1면; ③ ‘未然現在過去命令分詞’: 같은 책 제12장 ‘治定詞’편 19쪽 1면; ④ ‘言語之正格訛格’: 『日韓 善隣通語(上)』 제7장 ‘言語之正格訛格’편, 12쪽 1면.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동양권의 외국어 교재 전통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서양의 문법 이론을 선진적으로 흡수하여 외국어 학습에 원용(援用)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외국어 교재의 목적을 회화와 문법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책의 첫 부분에 발음·문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격과 성, 품사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는 방식은 위에서 고찰했던 존 킹(John King)의 교재를 비롯한 18세기의 서양 외국어 교재의 일반적인 형태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호세코가 기존의 동양적 외국어 교재 제작관(製作觀)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라는 외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동양적 외국어교육의 전통에 문법 분석이라는 서양적 요소들을 도입하여 정착시키려는 시도가 호세코에 의해 한반도의 동남부 접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2) 기존 교재 형식의 계승과 유지

이와 같이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기도 하였지만 호세코는 과거 동양권에서 내려오던 고유한 외국어 교수·학습 방식을 동시에 유지하기도 했다. 특히 어휘를 정리하여 학습하는 방식이나 상황에 따른 회화 제시는 근대 이전의 일본인들의 한국어 교재의 특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과거의 교재 방식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도표로 재구성하여 학습자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배치하였다.

『韓語入門』과 『日韓 善隣通語』 모두 기존에 내려오는 어학교재의 시각디자인적인 측면을 일관되게 이어받고 있다. 특히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가장 익숙한 교재이자 가장 널리, 오래 쓰였던 『交隣須知』의 시각디자인, 편집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였다.<sup>33)</sup> 이러한 구조화 방식은 학습자에게 충분한 ‘잉여성(redundancy)’을 제공한다.<sup>34)</sup> 즉 기왕에 다수에게 익숙한 편집 형태를 통해 불필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인지 지체(認知遲滯, cognition delay) 현상을 피하려는 의중을 볼 수 있는 것이다.

33) 강남욱, 위의 논문, 111~112쪽.

34) Fiske, John(著)/강태완·김선남(譯), 『문화커뮤니케이션론』(서울: 한빛, 1997), 36쪽 및 40쪽. 저자는 의미 중복(잉여성; redundancy)을 한 메시지 내에 존재하는 예측 가능한 관습적인 특성으로 정의했다. 즉, 잉여성을 확보하고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유형(type)이나 관습(convention)을 충분히 제공한다면 신선함은 떨어질 수 있으나 거부감이 없어져서 수용성에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외국어 학습자 오류에 대한 배려

『韓語入門』은 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어 교재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비교적 건조한 형태로 문법 규칙과 어휘들을 소개하는 편이지만, 상공인과 일반인들의 기초적인 한국어 회화 학습을 목표로 하는 교재인 『日韓 善隣通語』은 곳곳에 독자인 학습자를 상정하고 ‘대화하듯’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명을 넘어, 예상되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거나 학습자 입장에서 헛갈리기 쉬운 부분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서술하거나 정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기존 외국어 교재의 전통과는 다른 점이어서 선 후 영향 관계에 대한 규명이 앞으로도 상세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日韓 善隣通語(上)』의 6장, 7장, 9장은 아예 학습자 오류를 배려하기 위한 단원이기도 하다. 6장에서는 ‘言葉之混雜’라 하여 한국어의 ‘놓다’, ‘주다’ 따위의 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일 때와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예컨대 ‘(선물을) 주세요’와 ‘(여기에) 앉아 주세요’에 쓰인 ‘주다’의 용법과 의미, 기능이 다르다는 것)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여 단원을 구성했고, 7장에서는 ‘言語之正格訛格’라 하여 경상도 지역에서 쓰이는 방언은 한국의 ‘正格語’가 아니고 동경속어와 일본 정격어에 차이가 있듯 차이가 있으므로 그 차이에 유의해야 함을 일러 주고 정리한 단원이다. 이어 9장은 ‘同音異語’로 설정해 놓고 ‘빅[船腹/梨子]’라든지 ‘가지[茄/茄子]’가 다르든지, ‘공[公]’은 유음(柔音)이고, ‘콩[豆]’은 급격음(急激音)이라는 등 동음이의어뿐만 아니라 음운 상 헛갈릴 수 있는 최소대립(最小對立)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또 5장이나 9장 등에는 소위 ‘問答’ 코너를 단원으로 구성하여 예상되는 학습자의 질문을 적어 놓고 이에 대한 저자의 답변을 제시하는 등 상당히 파격적인 편제가 나타나고 있다.

### 3. 제임스 게일: 수용에 의한 회귀적 양상

이상에서 밝힌 로스와 호세코는 모두 근대 초기 한국의 북서부와 남동부, 국경 외부에서 한반도의 언어를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전통적 외국어교육관에 더해 상호 이질적인 수도 있는 형식을 수용하거나 시도한 사례들을 보인 것이었다. 이처럼 1880년을 전후한 개화기 단계의 한국어 교재는 접경지에서 출발하였는데, 개항

과 함께 불과 10년 이내에 외국인들은 한국의 중심부인 서울에 대거 진출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887년에는 스코트(J. Scott)의 『언문말척』(*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이 발간되었고, 1890년에는 언더우드(H. G. Underwood)의 『韓英文法』(*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이 출판된다. 앞의 두 사례는 국어 문법론의 관점에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저술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국어 교재사(敎材史)라는 측면에서 관찰해 보면 전자(스코트)는 서양인의 관점에서 한국어를 대역하여 제시하거나 문법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서양적 전통에 충실한 것이었고, 후자(언더우드)의 경우는 외국어 교재라기보다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학적인 기술에 가까운 문법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894년에 출판된 게일(J. S. Gale)의 교재는 그 편제(編制)가 독특하여 주목해 볼 만하다. 그는 1888년 12월에 내한한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로서, 입국 후 서울의 외국인 선교사촌을 버리고 일부러 황해도 해주(海州) 등지에서 한국인들과 어울리며 한국어를 배웠다. 그는 해주 출신의 양반 이창직(李昌植)을 만나 한학(漢學)과 한국어 실력을 심화시켰고, 훗날 그와 함께 성서 번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창직은 게일이 한국을 떠났던 1927년까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저술과 한국어 번역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한학에 조예가 깊은 양반 출신을 만나 한국어를 배운 그의 학습 배경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접근법에도 차이를 가져 왔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성서의 한국어 번역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다가 번역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을 일으켜 공동번역 성서의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개인역(個人譯)으로 1925년 신·구약 성서를 단독으로 출간한 인물이기도 했다. 이 의견 대립은 무엇보다, 다른 위원들이 성서 원문에 충실한 한글 번역을 주장한 반면에 게일은 한국어 어법을 최대한 존중하며 국한문 혼용체로 번역하기를 희망한 데에 원인이 있었다.<sup>35)</sup> 한국의 민속, 풍습, 설화, 심지어는 전래 종교에 대해서까지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교단으로부터 수차례 지적까지 받았던 그로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어법과

35) 金鳳姬,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의 韓國學 著述活動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3輯(書誌學會, 1988), 139~140쪽, 유영익, 「게일(James Scarth Gale)의 생애와 그의 선교사업에 대한 연구」, 『캐나다 연구』, 2집(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캐나다 연구센터, 1990), 139~141쪽.

문체를 존중하자는 입장을 굽힐 의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그가 한국에 입국한 후 6년 만에 제작한 『辭課指南(스과지남)』(*Korean Grammatical Forms*)은 동서양의 이질적인 요소가 섞이지 않고 반분(半分)한 듯 나타나 있다. 그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양식과 동양식의 분리 기술**

『辭課指南(스과지남)』(*Korean Grammatical Forms*)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전반부 ‘GRAMMATICAL FORMS’라는 표제 하에 ‘하다/이다/있다’를 기준으로 가능한 한 많은 형태의 종결어미를 결합하여 제시한 후, 종결어미와 시제 표시 선어말어미에 대한 문법적 설명을 곁들이면서 형태적 제약이나 문법적 문제, 이에 더해 몇 가지 조사에 대해서 기술했고, 후반부에는 ‘SENTENCES’라는 표제 하에 천문(天文), 시간(時間), 지리(地理), 질병(疾病), 색채(色彩) 등 36개의 범주, 1098개의 모범 예문을 들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제목은, 영문의 경우 전반부(*grammatical forms*)를 지칭하고 국문의 경우 후반부(辭課)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전반부는 전형적인 서양형 외국어 교재의 모습을, 후반부는 전형적인 동양형 외국어 교재의 모습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8)	<p>하어이다    하외다               이외다               외다 쇼어이다    쇠다               36; 85; 98;               103; 107;               155; 219</p>	<p>II. <i>Respectful forms.</i>                  하외다 is used as the verb "to be" with a (Korean) adjective.                  이외다 is used as the verb "to be" with a (Korean) noun ending in a consonant sound, while 외다 is used with nouns ending in a vowel sound.                  쇠다 and 외다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though 쇠다 is generally used with a consonant radical and 외다 with a vowel radical. See No. 148</p>	<p>(53) <sup>137</sup>날이<sup>70</sup>차니<sup>158</sup>어서<sup>158</sup>방으로<sup>158</sup>드리오                  녀라                  The day is cold; come into the room at once.</p> <p>(54) <sup>50</sup>서늘<sup>71</sup>하<sup>107</sup>니<sup>107</sup>자<sup>107</sup>잠이<sup>107</sup>저<sup>107</sup>절<sup>107</sup>노<sup>107</sup>흔<sup>107</sup>다                  As it is cool, sleep comes naturally.</p> <p>(55) <sup>88</sup>립<sup>137</sup>할<sup>137</sup>면<sup>137</sup>습<sup>137</sup>이<sup>137</sup>척<sup>137</sup>지<sup>137</sup>느<sup>137</sup>니라                  If it is chilly dampness gathers.</p>
------	---	---	--

<그림 6> 『辭課指南』의 전반부(좌)와 후반부(우)의 구성 방식 비교<sup>36)</sup>

36) 이 부분은 『辭課指南』, 16쪽, ‘하외다/이외다/외다/쇠다’의 문법 설명 부분과 103쪽, ‘時節(Solar periods—Seasons)’편 중에서 가져온 것이다. 각 좌측에 붙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의 예문에 나타난 문법을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컨대, 우측 그림의 (53)번 예문에서 ‘날이137차니70’의 구문에서 주격 조사 ‘이’는 앞의 (137)번 문법 설명을, 어미 ‘-니’는 앞의 (70)번 문법 설명을 참조하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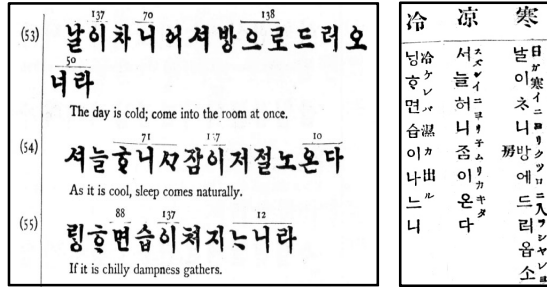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일은 전반부의 문형 부분은 여러 가지 문법 용어를 동원하여 상세하게, 후반부의 예문 부분은 간략한 해석만 달피 앞의 문법을 참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 상호 연관성을 주었다.

**2) 예문 문장의 전폭적인 인용**

『辭課指南(스과지남)』의 후반부 범주별 예문 부분에 대해서 기존 학계에서는 이 서적 속에 담긴 동서양 사이의 역동적 연관 관계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저자가 서양인이라는 1차적 배경이 강하게 작용해서인지 다만 서양인임에도 불구하고 교재에 다양한 관용 표현구와 속담 및 한국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생활 어휘와 한자숙어를 구사했다는 언급<sup>38)</sup> 정도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 예문들은 대부분 놀랍게도 우리세와 호세코가 함께 작업하여 수정 증보한 1881년 『交隣須知』의 예문에 일부 어미만 손질하고 부사를 부가하여 거의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더구나 범주별로 유사

항목을 제시하는 체제도 똑같다. <그림 7>에서 보듯, 계일의 『辭課指南(스과지남)』에서 나타난 예문은 『交隣須知』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서양인의 한국어 교재가 전통적인 한국어 교재의 영향력 아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루는 선행



<그림 7> 『辭課指南』(좌)와 『交隣須知 再刊本』(우)의 예문 비교<sup>37)</sup>

37) 좌측 『辭課指南』 103쪽, 우측 『交隣須知(1883년 外務省藏版 再刊本)』, 1권7장 뒷면과 1권8장 앞면 편집. 호세코와 우라세는 공동 작업으로 1881년 『交隣須知』 초간본을 간행하였으나 1883년의 재간본에서 호세코의 이름은 제외되어 간행된다. 호세코는 같은 해에 단독으로 산정본을 간행한 것이 전해지고 있다(白石氏藏版). 한국 디지털한글박물관(www.hangeulmuseum.org; 1883년 재간본 원본자료); 일본 국회도서관 디지털라이브러리(http://kindai.ndl.go.jp; 1883년 산정본 원본자료); 편무진, 『(諸本對照)交隣須知』(서울: 제이앤씨, 2005), 42~43쪽에 나타난 간본류(刊本類) 세 이본(異本)을 대조하여 참고해 본 결과 ‘寒, 凉, 冷’에 해당하는 세 개의 예문이 동일하기에 <그림 7>에는 인쇄 상태가 비교적 좋은 1883년 재간본만을 전재(轉載)해 두었다.

38) 십재기, 「계일 문법서의 몇 가지 특징」, 『한국문화』, 9집(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88), 4쪽; 6~11쪽.

연구는 최전승의 짧은 언급<sup>39)</sup>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게일은 분명히 『辭課指南(스과지남)』을 제작하면서 『交隣須知』의 존재를 알고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며, 과거 200년 이상 외국어 교재로서 명맥을 이어 온 이 책의 가치를 인지하고 동양의 외국어교육 전통에 대해서도 숙고했으리라 여겨진다. 이렇게 그는 새로운 예문을 만드는 것보다 기왕의 예문을 당대 언어에 맞게, 또는 설명했던 문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더군다나 그는 로스 이후 서양인들의 문법 교재에서 보였던 띄어쓰기나 가로쓰기를 오히려 되돌렸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이처럼 게일은 기본적으로 서양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땅에 있었던 언어 사용의 전통을 가급적 그대로 소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 IV. 맺는 말

한반도라는 공간적 배경 위에서, 또 근대 초기라는 시간적 바탕 속에서 한국어 교재는 시대와 전통 속에서 상호 교섭의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역동적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간 상 대략 15년 이내에 이러한 전개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점 자체가 대단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며,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의 외국어 교육 전통이 이 시기에 국경 지역으로부터 다양한 목적으로 다채로운 시도가 일어났다는 점은 앞으로도 많은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하는 흥미로운 대상이라 하겠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길지 않은 지면에 제시하다 보니 연구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되도록 많은 자료와 사료들을 서로 대어보고 견주어 봄으로써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로스는 한반도의 서북방에서 띄어쓰기, 가로쓰기 등 서양의 체책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동양적 외국어 교재의 제시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교재 구성 방식에서 교섭과 수용을 이루었다는 점, 둘째, 호세코는 한반도의 동남방에서 기존의 동양적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내용 면에서 과감할 정도의 서양식 문법 체계를 도입하여 외국어 학습의 효율성에

---

39) 최전승,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역락, 2004), 436쪽(각주 21).

대해 실험적인 형태의 교재를 시도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셋째, 이후 약 10년 사이에 서양인의 한국어 교재와 동양인의 교재는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최적의 방법들을 모색하다가 게일의 사례에 와서는 오히려 양측의 사례를 공평하게 정착시키는 방식도 나타났다는 것이 교재사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게일은 동양의 전통적인 한국어 교재를 활용하여 자신의 교재의 일부분으로 만들 만큼 그 수용에 적극적인 면이 있었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로는 여전히 미진한 점도 많다. 큰 부분만을 짚다 보니 미세한 교섭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는 모자랐고, 교재 하나하나를 외국어 교재의 보편적인 이론에 따라 분석하면서 그 유관성과 무관성을 규명하기에는 아직도 논리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후속 연구를 기약해 둔다.

## 참고문헌

- Internet Archives, <http://www.archive.org>.  
 Eighteenth Century Collections Online, <http://infotrac.galegroup.com/itweb/snu?db=ECCO>.  
 日本国立国会図書館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http://kindai.ndl.go.jp>.  
 국립국어원 디지털한글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  
 《중앙SUNDAY》.
- 강남옥, 『教材 評價論을 통한 근대 초기 한국어 교재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姜信沆, 『韓國의 譯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고영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 『言語 教育』 6권 1호, 1974, 79~117쪽.
- 金敏洙·高永根, 『歷代 韓國 文法大系』, 2nd. 서울: 박이정, 2008.
- 金鳳姬,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의 韓國學 著述活動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3집, 1988, 137~163쪽.
- 金鍾澈, 「조선시대 외국어교육과 서사문학」,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上)』, 서울: 月印, 2000, 21~43쪽.
- 金周賢, 「<Korean Speech>에 관한 연구」, 『승려어문학』 2집, 1985, 183~240쪽.

- 김정현, 『羅約翰(John Ross): 한국의 첫 선교사』.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2.
- 달레(Dallet, C.)(著)/안응렬·최석우(譯), 『韓國天主教會史(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 더글러스 브라운(저)/이흥수(외 역),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서울: 피어슨 에듀케이션 코리아, 2001.
- 朴甲洙,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서울: 집문당, 1999.
- 사이토 아케미(齊藤 明美), 『(개정판)交隣須知의 系譜와 言語』. 서울: 제이앤씨, 2004.
- 신길호, 『영어교육연구』. 서울: 북스힐, 2004.
- 신증진, 「개화기 한국어 회화서 <KOREAN SPEECH>에 대하여」. 『人文論叢』 27집, 2008, 223~247쪽.
- 심재기, 「게일 문법서의 몇 가지 특징」. 『한국문화』 9집, 1988, 1~18쪽.
- 유영익, 「게일(James Scarth Gale)의 생애와 그의 선교 사업에 대한 연구」. 『캐나다 연구』 2집, 1990, 135~142쪽.
- 李靚洙, 『朝鮮朝의 語文政策 研究』. 서울: 弘益大學校 出版部, 1987.
- 이기문, 「독립신문과 한글문화」. 『주시경학보』 4집, 1989, 7~21쪽.
- 이명희, 「明治時代の 朝鮮語學習: <交隣須知>의 時代別 背景을 中心으로」. 『日語日文學研究』 44집 1호, 2003, 205~227쪽.
- 이응호, 「Ross 목사의 Corean Primer에 대하여」. 『명지어문학』 11집, 1979, 13~39쪽.
- 이익섭, 『國語學概說』. 서울: 學研社, 1986.
- 이카라시 고이치(五十嵐 孔一), 「書評: 宝迫繁勝, 韓語入門(上·下)과 日韓善隣通語(上·下)」. 『형태론』 1권 2호, 1999, 377~385쪽.
- 鄭光, 『譯註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 서울: 신구문화사, 2006.
- 鄭光, 『朝鮮朝 譯科 試券 研究』. 서울: 成均館大大東文化研究院, 1990.
- 존 피스크(저)/강태완·김선남(역), 『문화커뮤니케이션론』. 서울: 한뜻, 1997.
- 최명옥, 「존 로스의 Corean Primer[한국어 초보]와 평북 의주지역어」. 『국어학논총』. 서울: 螢雪出版社, 1985.
- 최전승,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서울: 역락, 2004.
- 편무진, 「개화기 한국에서의 일본어교육과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교류』. 서울: 국학자료원, 2004, 111~134쪽.
- 편무진, 『(諸本對照)交隣須知』. 서울: 제이앤씨, 2005.
- 한성우, 「의주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Howatt, Anthony Philip Reid, *A History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Ross, J., *Corean Primer*. 1877.

Ross, J., *Korean Speech*. 1882.

Gale, J. S., 『辭課指南(스과지남)』(*Korean Grammatical Forms*). 1894.

John King(Johann König), *Englischer Wegweiser*. 1706.

宝迫繁勝, 『韓語入門』. 1880.

宝迫繁勝, 『日韓 善隣通語』. 1880.

雨森芳洲(浦瀬裕 増補), 『交隣須知』(外務省藏版 再刊本). 1883.

### 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개화기 이후부터 일제 강점기 직전까지 외국인들이 저술한 한국어 교재 중 3종을 선정하여 ‘교섭과 정착’의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동양의 언어교재와 서양의 언어교재의 특성이 역동적으로 수용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로스(J. Ross), 호세코(宝迫繁勝), 게일(J. S. Gale)의 한국어 교재를 사례로 들어 비교·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한 연구 전단계로서 동서양 외국어 교재의 전통에 대해 고찰하였다. 동서양의 외국어교육사에서 주요한 교재들을 일람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리들을 추출하여 배열하였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인해 한반도 주변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한국어 교재는 흥미로운 특색을 지닌다. 로스의 교재는 동양적인 구성 위에 서양적인 저술 방식으로 학습자를 배려하였고, 호세코의 교재는 기존의 동양적 외국어 교재의 틀 위에 서양의 문법론과 체계적 분석을 도입하였다. 게일의 교재는 독특하게도 두 개의 전통을 절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다양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순간들에 대한 포착이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어 교재사라는 입론에서 볼 때 이 시기는 대단히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재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 투고일 : 2009. 4. 10.      ● 수정일 : 2009. 6. 6.      ● 게재확정일 : 2009. 6. 15.
- 주제어(keyword) : 19세기 한국어 교재(19th century KFL materials), 한국어 교재사(history of KFL materials), 존 로스(Ross, J.), 호세코 시게카쓰(Hoseko Sigekatsu), 제임스 게일(Gale, J.).